

민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 시 추석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토요일 11 시 : Eckert's Farm 에서 Apple Picking 과 점심공양
 셋째주 일요일 11 시 전법기도 법회 (선오스님 법문)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야외법회 (10 월 11 일):11 시법회, 12 시 점심공양, 1 시부터: 단체놀이
 Fort Yargo State Park (10 시 30 분 제주 사우나 주차장에서 출발)

새벽기도: 아침 6 시 30 분-7 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g 9am. (매주 토요일 9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부처님 가르침
 말로만 외우고
 행으로 옮기지 않는 생각 없는 사람,
 성스러운 생활의 즐거움
 맛볼 수 없네.
 이런 사람
 주인의 소(牛)만 세고 있는 목동 같네.

If a man speaks many holy words
 but he speaks and does not,
 this thoughtless man cannot enjoy
 the life of holiness: he is like a cowherd
 who counts the cows of his master.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9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나 하나의 청정이 승가를 맑히우리다”
제 37기 행자교육원 회향



제 37기 행자교육원 회향식이 9월 18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거행됐다.



행자교육원 회향식에 이어 봉행된 수계법회에서 모두 145명의 행자가 사미(니)계를 받았다.

“나 하나의 더러움이 승가를 더럽히듯, 나 하나의 청정이 승가를 맑히우리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출가자의 길에 들어서시는 예비스님들이 탄생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법장스님)은 오늘(9월 18일) 제 37기 행자교육원 회향식과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5일부터 2주간 교육을 진행한 행자교육원에서 남행자 96명, 여행자 49명 등 모두 145명의 행자들이 사미(니)계를 받았다.

이날 회향식에서 교육원장 직무대행 법장스님은 “우리는 행복을 위해 출가해 이 자리에 왔으므로 괴로움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해탈 열반을 위해 정진하되 나만의 행복이 아닌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한다”며 “이번 행자교육원은 종단이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귀하게 키워낸 만큼 스님으로서 귀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자교육원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차원에서 기간을 단축하고 장소를 변경하는 이례적인 조치가 취해졌지만 미래 한국불교의 동량을 기른다는 목표에는 한 치의 벗어남도 없었다. 교과목이 일부 축소됐지만 습의과정은 오히려 강화돼 여법한 수행자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한 덕분에 신종플루 발병과 같은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제 37기 행자교육원은 지난 5일 입방고사를 통과한 150명의 행자를 대상으로 개원해, 교과 강의와 습의 등을 거쳤다. 지난 15일에는 삼보일배를, 17일에는 5급 승가고시를 치렀다. 회향 전날에는 지난 36기에 이어 보살계 수계법회를 거행하고, 밤을 새워 3000배 정진하기도 했다. 계를 받은 예비스님들은 승가대학과 기본선원 등 종단 기본교육기관에서 수확하며 수행자로서의 본격적인 구도의 길을 걷게 된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중생 선근 파괴해 생사에 윤회하게 해

- 마경(魔境) -

본문에 <능엄경(楞嚴經)>과 <천대지관(天台止觀)>과 규봉의 <수증의(修證儀)>에서 마의 일을 다 밝혔다고 하였는데, 마의 일은 매우 많아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수행자를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일체를 마의 일이라고 한다.

마의 일에 대하여, <소지관(小止觀)>에서는 “부처님과 같은 분은 공덕과 지혜로써 중생을 제도 해탈시켜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을 일로 삼고 있는데, 마는 항상 중생의 선근을 파괴하여 생사에 윤회하도록 하는 것을 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즉, 부처님의 하는 일이 번뇌가 많고 미혹한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시켜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이라면, 마가 하는 일은 수행하는 이의 선근을 파괴하고 마음에 틈이 생기게 하여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며, 수도를 방해하고 마침내는 그를 무너뜨려 생사에 윤회하도록 하는 것을 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의 <원각경도량수증의(圓覺經道場修證儀)>는 <원각경>의 실천 방법에 대해 설한

것으로, 도량법사(道場法事), 예참법문(禮懺法門), 좌선법(坐禪法)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선법을 여덟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 가운데 ‘변마(辨魔)’에서 마에 대해 밝히고 있고, 천태지의(天台智, 538~597)선사의 <마하지관(摩訶止觀)>과 <소지관>의 ‘변마’에서 마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소지관>의 원명은 <수습지관좌선법요(修習止觀坐禪法要)>이다.

그러나 <마하지관>과 <소지관>, <원각경도량수증의>의 마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비슷하며, 이 가운데 귀신마를 설명한 부분은 중국의 민간사상을 그대로 수용한 듯하다. 왜냐하면 귀신마 가운데 하나인 정매를 12지(支)의 짐승이 갖가지 형색으로 변화하여 수행자를 방해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능엄경>에서는 수행할 때 나타나는 마의 모습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하고 있어 선문(禪門)의 주목을 받아왔다. 여기서는 선문에서 주목을 받아온 <능엄경>의 50 변마(辨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능엄경>의 조도분(助道分)에 해당되는 제 9 권과 제 10 권에서는 수선할 때 선정 중에서 나타나는 50 종의 마의 경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능엄경’에서는
오음이 녹아 없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경계
50 가지를 세분화해 설명하며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부처님께서는 앞부분(제 1 권~제 8 권)에서 큰 지혜인 최상의 묘각(妙覺)에 나아가려고 하는 연각(緣覺)과 성문(聲聞)들에게 참다운 수행법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법문을 마치려고 한 부처님께서는 유학(有學)인 연각과 성문이 지와 관을 닦는 가운데 나타나는 미세한 마구니의 일과 마경이 앞에 나타날 때 사건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다시 대자비의 법문을 시작한다. 이것이 <능엄경>의 50 마경이 설해지게 된 배경이다.

즉 50 마경은 유학들을 위해서 설해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학(無學)은 색수상행(色受想行)의 4 음은 없어지고 식음(識陰)만 남아있어 천마.귀신 등의 마경이 작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유학들을 위해서 오음을 다 말씀하신 것이다.

<능엄경>의 ‘50 마경’은 선문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는 수선할 때 선정 가운데에 나타나는 마의 모습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수행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과 세계의 연원과 실상을 이해하는 요소로서 오음(五陰)을 들고 있다. 오음은 오온(五蘊)이라고도 하며 색(色, 물질), 수(受, 감각), 상(想, 지각), 행(行, 형성력), 식(識, 식별작용)의 총칭이다. 이 오음은 크게 색과 그 작용(수상행식)으로 나뉜다. 색은 사대인 지수화풍(地水火風)이며, 그 작용은 사대소조(四大所造)인 명(名)이다. 그러면 <능엄경> 권 2에서는 오음에 대하여 “본래무(本來無)인 5 음(五陰), 6 입(六入), 12 처(十二處), 18 계(十八界) 등의 인연이 화합하면 만가지의 허상이 허망하게 생겨나고, 그 인연이 흩어지면 허망하게 없어지느니라. 진실로 생멸거레가 본래 여래장(如來藏)의 묘진여성(妙眞如性)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거래(去來)와 미오(迷悟), 생사를 구하면 조금도 얻을 수 없느니라”고 하여 오음은 깨닫지 못하면 허망한 것이며 깨달으면 본래는 여래장성이라고 하였다. 오음이 곧 인간을 이루는 요소이지만 인간이 맞는 여러 가지 장애도 역시 오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에 “한 생각이 움직이면 오음이 함께 일어나나니, 오음 가운데 50 가지 악이 갖추어져 있느니라”고 하였고, <잡아함경>에서도 나타(羅陀)가 부처님께 마의 정체를 물으니, “색수상행식 모두는 마라고 관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즉, 부처님은 색수상행식 오음의 작용이야말로 ‘마의 정체’라고 대답하고 있다. 붓다는 이 5 개의 개념이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고, 악마란 그런 요소들이 작용해서 생기는 내재적인 갈등이나 불안으로 간파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음을 마로 본 것이다.

‘50 마경’도 오음을 마로 보고 각 음마다 10 개씩의 마상(魔相)을 제시하고 있다. <능엄경> 권 9에 “선정을 성취하고 또 파란(破亂)함이 네 심중에 있는 오음주인에게 달렸다. 주인이 미혹하면 객(마구니)이 그 틈을 타고 오거니와,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 오음에게 홀리면 반드시 마의 자식이 되어 마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선정을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고는 오음의 주인인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주인이 미혹하면 마구니가 그 틈을 얻게 되고 마구니의 일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 오음에게 홀리게 되면 마인이 된다고 하여 선정의 성취여부가 전적으로 오음주인에게 달렸다고 하였다.

<능엄경>에서는 오음, 즉 색.수.상.행.식이 녹아 없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10 가지씩의 마경을 제시해 수행함에 장애를 극복하고 수행에 정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두 50 가지로 세분하여 세밀히 설명하고 있으며, 닦아 나아가는

특별기고/"한국불교 미래는 밝다"

청소년포교는 미래를 위한 불확실한 투자다. 굳이 청소년포교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5년, 10년 뒤에나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투자가 곧바로 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기도 하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위험이 따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포교는 미래를 위한 불확실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다.

청소년포교가 그런 분야다. 지금 열정을 쏟아 부어도 그 효과가 나타날지? 나타나도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투자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이득과 효과가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땀방울을 흘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가을을 위해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청소년포교를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고 한다. 짧게는 10년 뒤, 길게는 50년, 100년 뒤의 우리 모습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주변에 청소년포교를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청소년포교를 위해 시간과 재원을 투자한 단체는 더 더욱 적다. 아무도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지 않고, 아무도 잘했다고 격려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칭찬과 격려가 없는 분야에 시간과 재원을 투자할 사람과 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주도적으로 동국대학교와 파라미타, 불교신문사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교리경시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놀랍게도 2천명이 훌쩍 넘게 응시했다고 한다. 고시장이 개설되지 않은 제주와 속초, 해남과 순천 등에서도 아이들이 응시를 했다고 한다. 제주와 속초에서는 시험전날 서울에 올라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얼마나 대단한가?

이 전국규모의 경시대회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걸린 일이다. 미래를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눈앞의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지난봄부터 준비한 이번 경시대회가 결실의 계절 가을, 그 소중한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아니, 소중한 결실이 맺어져 우리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교리탐구: **공과 제법실상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문 :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공(空)과 모든 것이 실제의 모양이라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은 아무래도 모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모순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답 : 공과 제법실상은 표현의 차이일 뿐이며,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오라는 표현을 할 때 손바닥을 아랫방향으로 하고 상하로 흔들지만, 미국에서는 손바닥을 위로해서 손가락을 전후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단순히 손 모양을 보면 서로 반대이지만 표현하는 내용은 동일한 것이지요.

공과 제법실상도 단어의 해석만 보면 반대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이나 제법실상이라는 용어를 통해 깨쳐주려는 내용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가르침이 각기 다른 입장의 사람에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공이란 비어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비어있음은 없음과는 다른 말입니다. 없음은 말 그대로 ‘그 무언가가 없는 것’이라면 비어있음은 ‘그 무언가가 오고가는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뜻이지요. 없음이 한 단면을 표현하고 있다면 공은 연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무게와 부피를 지닌 엄연한 공간구성체입니다. 그러므로 극히 짧은 찰나의 단면에서는 일정한 무게와 부피를 지닙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이미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분석해보면 몸이라는 것이 세포나 피나 여러 호르몬 등이 어느 한 순간도 멈춘 상태가 없는 것이며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끝없는 변화인 공(空)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몸으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릴 적의 큰 상처가 평생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아울러 그 몸으로 밥 먹고 잠자고 똥 싸는 일을 했지 완전히 별개의 몸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상태로 쓰고 있는 그 몸이 곧 모든 것을 느끼고 행동하는 실제의 몸인 것이지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몸은 곧 실상(實相)인 것입니다.

생각도 끝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고정된 영원불변의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끝없이 변하는 그 생각들로 인해 괴로워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건전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비관적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생각도 바로 실제적인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는 실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두 가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가르침은 상반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사물이나 생각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집착하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끝없이 변하는 자신의 생각과 몸은 말할 것도 없고 타인의 생각과 눈앞의 사물이 변하는 것으로 인해 언제나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게는 바로 공의 원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케 하려는 것입니다. 또 만약 공이나 무(無)를 오해하여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지면 자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게는 모든 존재가 참답다는 원리를 깨우치게 함으로써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꾸려가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불교신문에서 발췌 -

진짜 윤회하는가?

질문. “당신은 ‘우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아무 증거가 없다.

”이것에 대해 답하기에 앞서, ‘사후 생명’에 관한 기독교와 불교의 이론을 살펴봅시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느님이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고 그것이 인간이 되어 자기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죽고 난 뒤 그 영혼은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당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실존(existence)의 원초(原初)를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존재(being)는 자기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고 새로운 실존(existence)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죽음과 재생의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존재(being)가 열반을 성취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존재가 열반을 성취하면 그의 이해력[understanding] 그리고 그 결과 행동이 변하고 이것이 재생의 원인이 되는 과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생존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신에, 그 존재는 열반을 성취합니다.

열반은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 존재하며, 성장하고 노쇠해지며, 시간과 공간(時空) 속에서 움직이는)

실존(existence)이 아니며, 그것은 전멸(全滅)·적멸(寂滅)이 아니므로 ‘실존하지 않는 것(non-existence)’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을 성취하지 않는 한 각 존재(being)의 실존(existence)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열반을 이룰 때까지는 존재하기 위해서 실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이 두 가지 이론 중 어느 쪽에도 확실한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쪽의 이론에는 불교 쪽 이론에 없는 논리적 도덕적 문제점이 있어서, 후자[불교 이론]를 좀 더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실존(existence)을 순환적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해,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과정의 실례를 자연에서 전혀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자연계의 모든 과정들은 순환적입니다. 봄·여름·가을과 겨울의 계절이 지나가지만 다음 해에 다시 돌아옵니다. 비가 내려, 바다로 흘러가고,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죽으면 그 몸이 부서지고 흩어져 그 요소들을 땅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땅에서는 식물과 동물들이 그 요소들을 흡수하게 되며, 우리가 다시 그것을 먹어 몸을 만들어냅니다.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고, 심지어는 우리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계까지도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윤회(rebirth)에 관한 불교 쪽의 이론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순환적 과정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 반해서, 기독교 쪽의 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도들은 “하느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창조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복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줄 것이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태아 수백만 명이 해마다 자연 유산되고 갓난 아이 수백만 명이 사산되거나 태어난 지 2년 안에 죽어가는 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수백만 명은 심지어는 가장 단순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 지체를 간직한 채 태어나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이 예정해놓은 계획에 어떻게 꼭 맞는단 말입니까? 새 생명을 창조하고서 그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죽게 만드는 데에 있어 하느님이 무슨 목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존재[생명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천당으로 갑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까? 만약 하느님이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들을 창조하였다면, 그 계획이 매우 불명(不明)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 중 대다수는 비-기독교도이고 심지어 기독교도라고 하여도 모두 구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것은 ‘하느님이 창조하는 모든 영혼들 중 상당 비율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하느님의 계획은 길을 매우 잘못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기독교 혹은 불교 쪽의 이론 중 하나를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불교의 교리가 좀 더 호소력이 있고 수궁할 만 합니다.

질문 8. “열반은 성취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실제적이다.

”열반을 성취하는 데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것[輪廻]’이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을 줍니다. 우리가 그것[열반의 성취]을 금생(今生)에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만약 진실하게 원하면, 1주일 이내에도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맛지마 니까야』 제 10 경) 그게 사실이라면, 기독교도들은 “왜 모든 불교도들이 이미 열반을 성취하지 못했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묻는 것은, 세속적인 현상들이 그들에게 아직까지 큰 흡인력(吸引力)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찰력과 이해력이 점진적으로 그런 흡인력을 사라지게 하면서, 각자의 속도대로 열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한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오직 한 차례밖에 없는 데 반해, ‘다시 태어남[再生, 還生, 輪廻]’에 관한 불교의 가르침은 ‘한 사람에게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듯이 ‘결국에는 모두가 해탈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사(不死; 열반)의 경지를 성취해왔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오늘이라도 이를 수 있네. 하지만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네. (『長老尼經(Therigatha)』 제 513 계송)

- 향산 거사 -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법

1) 기도는 업장을 소멸하는 것

기도는 중요한 수행법의 하나로서 매우 신비롭고 미묘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기도'라는 말은 그대로 빈다는 뜻이다. 중생들은 그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죄업은 무겁고 복덕이 적은 관계로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온갖 재난과 재앙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이러한 고난, 장애, 재앙은 다 그가 날 적부터 지니고 태어난 전생의 업보(業報)와 업장(業障) 때문이다.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불, 보살의 가피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가피력에 의해 타고난 업보와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성취해서 모든 고난, 장애, 재앙에서 벗어나 하는 일과 구하는 바를 뜻대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덕(福德), 지혜(智慧), 자비(慈悲), 만덕(萬德)의 무한한 능력을 갖추신 부처님과 보살님께 진심으로 귀의하여 예배, 공양, 참회, 발원함으로써 불, 보살의 가피력을 입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염불과 주력도 그와 같이 죄업을 소멸하고 지혜 복덕을 성취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보다 직접적으로 불, 보살의 가피력에 의하여 죄업을 소멸하고 복덕을 성취하는 길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우주에 충만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기도는 마치 텔레비전의 안테나처럼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이 자비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성으로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중생의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 있는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고 마치 태양과 같은 지혜 광명이 빛나는 것이다.

2) 기도의 방법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의식을 갖추는 것이 예로부터 전해 오는 통례이다.

① 불, 보살님께 지성으로 귀의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다.

어떤 하나의 불, 보살이나 또는 많은 불, 보살님전에 한 마음을 기울여 귀의한다.

② 두 번째는 공양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공양은 좋은 향을 사르고 등불을 밝히면서 청수다(淸水茶)를 올리며 꽃, 과일, 쌀 등을 불, 보살님 전에 공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향과 등과 차만을 공양하거나 또는 향 하나만을 공양해도 무방하다.

③ 세 번째는 예경이다.

어떤 하나의 불, 보살님이나 또는 많은 불, 보살님께 지극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3 배, 108 배, 1,000 배 이렇게 불, 보살님께 예배를 올려야 한다.

④ 넷째는 참회하는 것이다.

이 참회 의식에는 비로자나 참법, 미타참법, 관음참법, 보현참법, 지장참법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기도법회에

참회법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참회는 진실로 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성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 참회법은 기도와 독립시켜서 실행하는 것도 좋다.

⑤ 다섯째로 염송이다.

어떤 하나의 불, 보살이나 많은 불, 보살님의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부르며 정근하는 것이다.

참 회 기 도

세간의 청정한 길 열어주시고,
깨끗한 공덕 눈으로
밝게 비춰주시는 부처님.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고
많은 죄업을 지었사옵니다.

서원 깊으신 부처님이시오,
탐욕과 성냄과 미련으로 지은
모든 죄업 참회하오니
다시는 죄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듯
미혹의 번뇌를 돌려 깨달음을 구할지니
청정한 불심으로 바른 믿음 굳게 지녀

거룩한 보살도에서 물러나지 않겠나이다.
끝없는 공덕의 바다이신 부처님.
세세생생 보살도를 항상 닦게 하옵소서.

그림 속의 다리

기타대지(祈陀大智)

양쪽 언덕엔 푸른 안개요 산빛 에 있어
달빛 흐르는 강은 물소리도 사라졌네
붓끝에서 생각 이전의 길이 점 찍혀 나오나니
무지개다리 위에 사람하나 가고 있네.

사찰음식:

● 고비 두부탕

재료

고비 150g, / 두부 1/4 모, / 들깨즙 3 컵, / 소금 2 큰술, / 붉은고추 1 개, / 멥쌀가루 1 큰술, / 표고버섯가루 1 큰술

조리법

- 말린 고비는 미지근한 물에 담귀 불린 후 연해질 때까지 약한 불에서 충분히 삶는다.
- 고비는 6-7Cm 길이로 손질하여 둔다.
- 두부는 3-5Cm 로 썰고, 붉은고추는 어슷썰기해 둔다.
- 들깨즙에 멥쌀가루를 풀어서 끓기 시작하면 고사리를 넣어 약한 불에서 충분히 끓인다.
- 충분히 끓으면 두부를 넣고 소금과 표고버섯가루로 간을 하고 붉은 고추를 넣는다.

알아두면 유익한 불교 관계 홈페이지 주소:

불교 TV 방송: www.btn.co.kr

불교 라디오 방송: www.bbsi.co.kr

대한불교조계종: www.buddhism.or.kr

불교신문: www.ibulgyo.com; 불교포커스: www.bulgyofocus.net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10월 11일은 Fort Yargo State Park 에서 야외 법회를 갖습니다.)
- 10월 3일이 추석이라 10월 4일 첫째주 일요일 법회 시작하기전에 송편만들기가 있습니다. 송편을 만든후에 기도에 들어가니 송편만드는 경험을 하시고 싶은 신도님이나 자녀들은 10시 00분까지 사찰로 와 주십시오.
- 10월 18일 셋째주 전법기도 법회때에는 한국 정토사 주지 선오스님을 모시고 특별 전법 기도 법회를 갖습니다. 일정에 있었던 셋째주 일요일 Eckert's Farm 야외법회는 선오스님을 모시고 귀중한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과따기 야외 법회는 토요일로 옮겼습니다. 혼돈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 셋째주 일요일에 갖기로 했던 Eckert's Farm 에서의 야외법은 토요일에 갖습니다. 오전 11시에 부다나라 (불국사)에 모여서 함께 Eckert's Farm 으로 출발합니다. 이날은 Eckert's Farm 에서 Fuji (부사) 사과도 따고 뷔페식당에서 점심공양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째주 법회시간에 공지 하겠습니다.
- 둘째주 일요일 10월 11일 애틀랜타 법회는 아주 큰 호수들과 아름다운 Trail 들과 보트선착장 까지 있어서 일요일 근교 나들이 장소로서는 최고로 꼽을 만한 Fort Yargo State Park 에서 야외 법회를 갖습니다. 이날 일정은 11시 법회, 12시 점심공양, 1시부터는 단체 놀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Fort Yargo State Park 는 차 한대 당 5불씩 주차료로 받기 때문에 일단 Duluth 제주 사우나 주차장에서 10시 30에 모여서 다함께 출발합니다.
Duluth 제주 사우나 가는 방법: (I-85 North 방향: Exit 104에서 Pleasant Hill Rd 로 좌회전 한 뒤 Mall Blvd 로 우회전하셔서 들어가시면 왼쪽에 나옵니다.)
-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사찰음식의 대가중 한 분이기도 하신 한국 충남 소재 정토사 주지 선오 스님이 사찰을 방문하십니다.
- 부다나라 (불국사)에 상주하시며 주지스님을 도와 포교를 같이 담당 하실 스님이 오십니다. 법납 20년차 되는 지상스님은 출가이후 봉녕사 강원과 동국대학교 선학과를 졸업하셨고 제방선원에서 참선 정진하신 인재 이십니다. 부다나라 대중은 지상스님을 새로운 대중으로 맞이하여 스님으로부터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대중은 스님이 미국에 잘 적응 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부다나라 토요일참법회와 아침 새벽정진 기도에 참석해서 그동안 열심히 정진했던 Mr. Ryan Waller 가 한국 전통 사찰에서 체험 수행을 위해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Temple Stay 를 화계사, 월정사, 통도사, 송광사에서 가집니다. 약 두 달간의 Mr. Ryan Waller 의 Temple Stay 비용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해충 큰스님께서서 일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Temple Stay 장학금으로 지불해 주셔서 성사되었습니다.
- 2010년 달력불사를 받습니다. 불광출판사에서 달력 400부를 프린트하는 비용 및 신도님 가정으로 발송비용 등 제반비용이 약 \$1,000.00 이 소요 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은 부다나라 (불국사) 나 한국 부다나라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2009년 9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430번 병진생 전지명, 471번 임술생 박연희, 472번 병인생 박태환.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2010년 달력 불사 (필요 예산: \$1,000.00): 문수지 권효정 \$250.00, 인범 김종환 \$100.00, 무량화 문봉순 \$100.00, 청운화 Woojin Robinson \$50.00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팀장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